경제혁신 3개년 계획 | 대한민국 제도약의 힘, 창조경제

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부 투자정책과 김용채 과장(044-203-4070), 박석주 사무관(044-203-4072)
투자유치과 김재준 과장(044-203-4083), 류종민 사무관(044-203-4089)

외국인투자주간 2016 (FIW 2016) 개최 결과

◇ **참가인원, 1:1 상담규모 등 역대 최대 행사**
◇ **견고한 한·중 투자협력 관계 확인**
◇ **투자가 라운드테이블 이후, 약 3억 달러 규모 외국인투자 신고**

□ 산업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코트라: KOTRA)와 함께 9.27.부터 3일간 개최한 **제12회 외국인투자주간이 성황리에 폐막**

○ 행사 기간 중 **투자유치설명회, 투자가 라운드테이블, 1:1 상담회, 투자입지 시찰** 등 **한국의 투자매력**을 알리고 **한국투자 성공전략**과 **유망한 투자기회**를 소개하는 총 1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

□ 올해 외국인투자주간은

① 역대 최대규모 행사

○ 최근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세계 **외국인직접투자(FDI) 위축 전망***에도 불구하고 **전년대비 24%가 증가**한 **총 1,425명이 참여**하는 **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**로 치러짐

*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(UNCTAD)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, 원자재 수출국가의 저성장 등으로 2016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(FDI)가 전년대비 10~15%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

* '16년 상반기 기준, 주요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감률(전년동기 대비) : (미국) △12.4%, (EU) △35.6%, (중국) 1.5%

- **334명**(289개 회사)**의 방한 투자가**(전년 대비 25% 증가), **주한 외투기업 201개 회사** (전년 대비 37.7% 증가), **국내기업 339개 회사**(전년 대비 15.7% 증가), **해외언론 19개 매체** 참여

- 특히, **방한 투자가의 77%**가 **신산업* 및 서비스업** 분야** 투자가로 향후 일자리 창출,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**신산업 및 서비스업 분야 투자가 활성화**될 것으로 기대

* 신 산 업 : 정보통신기술(ICT) 융합(9%), 에너지 신산업(6%), 고급소비재(3%), 바이오헬스(2%) 등
** 서비스업 : 금융(23%), 비즈니스 서비스(15%), 관광레저(9%), 문화 콘텐츠(5%) 등

○ 외국인 투자자와 외투유치를 희망하는 국내기업간의 **1:1 상담**도 **전년(429건) 대비 57%가 증가한 674건**이 이루어져,

-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액('15년 209억불, 신고기준)의 **13.8%**에 달하는 **총 28.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상담**이 진행

② 견고한 한·중 투자협력관계 확인

○ 이번 행사에는 작년(34개 회사)에 비해 **106%가 증가**한 **70개 회사(81명)의 중국 투자가가 방한**했고,

- **국내기업과 1:1 상담도** 작년(162건)보다 **70%가 증가**한 **274건**이 이루어져 **4위*의 대한(對韓)투자국**으로 부상한 **중국의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**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

* 국가별 외국인 투자금액(억 달러, '15년 신고기준)
① 미국 54.8, ② 싱가폴 25.2, ③ EU 24.9, ④ 중국 19.8, ⑤ 일본 16.7

○ 특히, 중국에서 방한한 투자가 중 **신산업**(26.7%) **및 서비스업**(33.3%) **분야 투자가**가 전체의 **60%*를 차지**하여,

* 신 산 업(26.7%) : 정보통신기술(ICT)융합, 고급소비재, 에너지신산업, 바이오헬스, 신소재 등
서비스업(33.3%) : 금융, 관광·레저, 문화콘텐츠, 물류·유통, 비즈니스서비스 등

- **부동산 개발 등 일부 업종에 편중***된 중국의 대한 투자가 **신산업 및 서비스업으로 다변화**되고 있는 경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

* 중국 투자 중 부동산분야 투자 비중(신고, %) : (09) 66.1 (11) 44.4 (13) 44.6 (15) 8.4

○ 아울러 **한·중 투자협력 플랫폼**인 **한·중 투자협력연석회의***의 구체화를 위해 양국 투자유치기관(한국 인베스트코리아(Invest Korea), 중국 중국투자진흥원(CIPA: China Investment Promotion Agency)간 **실무협의를 시작하여**,

* 정부, 투자유치기관, 지자체, 산업단지 관련 기관, 기업, 민간 전문가가 참여

- **'한·중 투자협력연석회의'** 창립발기대회를 올해 **11월 말, 북경에서 개최키로** 하고,

- 중국투자진흥원(CIPA) 주관의 **한·중 산업협력포럼**('16.11.9, 서울), 인베스트코리아(IK) 주관의 **중국 투자유치 기업설명회(IR)**(11월 예정) 등 **투자유치 활동을 상호 적극 지원**하고,

- 앞으로도 양 기관이 두 나라의 지자체, 산업단지, 기업의 **투자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자는데 합의**

③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 창출

○ 산업부 주형환 장관 주재로 개최된 **'주요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'**에서,

- **광치**(정보통신기술(ICT)융합, 중국), **도레이**(첨단신소재, 일본), **머크**(바이오헬스, 독일), **센트럴글래스**(에너지신산업, 일본) 등 다양한 국가와 분야를 대표하는 **16개 기업이 참석**하여

- **지리적인 입지, 우수한 인적자원과 자유무역협정(FTA) 네트워크, 세계적인 기업과 협력가능성** 등을 투자처로서 **한국이 가지는 매력요인으로 평가**하고,

-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정보기술(IT), 바이오 등 **신산업이 향후 새로운 투자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 적극 공감**.

○ 또한,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**정주여건 개선***,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**인센티브 지원 강화**, **국내 대형 기관투자자와의 협업**, **유망한 한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** 등을 건의

* 외국인 학교 설립, 입출국 및 비자절차 간소화 등

- 이에 대해 주장관은 건의사항별로 **전담관**을 지정해 **밀착 지원**하고, **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**하겠다고 강조

○ 특히,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2개의 펀드운용사, 1개 물류기업 등 **3개 중국 기업이 3억 달러 이상의 투자신고서를 제출**하는 등 **한국에 대한 투자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**하였고,

- 이외에도 첨단신소재, 고급소비재 등 4개 분야 **5개 기업***이 **연내 총 1.1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**을 밝힘

* A사(신소재, 5천만 달러), B사(신소재, 2천만 달러), C사(소비재, 1.8천만 달러), D사(에너지신산업, 2천만 달러), E사 (시장조사, 1백만 달러)

□ 정부는 올해 외국인투자주간을 계기로 **대한(對韓)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**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,

○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및 1:1 상담회를 통해 투자 의향을 표명한 투자가에 대해서는 **1:1 전담관리시스템**을 구축하여 투자를 **조기에 현실화**해 나갈 계획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박석주 사무관(☎ 044-203-4072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국가별 방한투자기업 현황**

국가		업체수	인원	주요투자가	전년도 업체수
북미 (71개사)	미국	49	63	- Johnson & Johnson (바이오헬스) - Dow Chemical Company(에너지신산업) - Avery Dennison (첨단신소재) - Applied Materials (전기전자) - Laird (전기전자) - Western Digital Corporation(전기전자) - CBRE (부동산개발) - Stericycle (위험폐기물처리)	43
	캐나다	22	24		13
유럽 (24개사)	영국	9	12	- AFC Energy PLC (에너지신산업) - Macquarie Securities Korea (금융) - Worldwide Invest Management, Pierre & Vacances Center Parcs Group (부동산) - Euromonitor International (금융) - Solvay Korea (에너지신산업) - Allsaints (고급소비재) - BEFESA (에너지신산업) - Mango (Punto FA,SL) (고급소비재) - Versalis (첨단신소재)	5
	스페인	2	3		4
	이탈리아	2	4		6
	벨기에	1	1		5
	스웨덴	2	2		2
	네덜란드	1	1		0
	스위스	2	2		1
	프랑스	2	4		4
	독일	3	3		9
일본 (71개사)		71	74	- Hitachi.Ltd (전기전자) - Toray (첨단신소재) - KOMATSU SEIREN (첨단신소재) - KONICA Minolta (부품소재) - Nishi-Nippon Railroad (물류) -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(ICT 융합)	60
중화 (108개사)	중국	70	81	- Yuanta Commercial Bank (금융) - JCET (전기전자) - KUANG-CHI (ICT 융합) - Aesthetic International Holding Chain Group (고급소비재) - Marina Bay Sands (관광레저) - Inventis Investment Holdings (금융)	34
	홍콩	16	17		16
	대만	4	4		3
	싱가포르	18	25		15
아시아 (7개사)	호주	4	4	- Vibrant Group (물류)	5
	인도네시아	3	2		0
중동	두바이	8	8	- Saif Al Ghurari Group (부품소재)	9
총계		**289개사**	**334명**		**235개사 267명**